

제주사회복지신문

제39호

2011년 1월 3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립



“제주도 브랜드로 얻은 이익 어려운 이웃에 환원은 당연”

제주마썸 한상용 회장

“제주도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제주의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지요.”

제주지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생산 물품을 십시일반 모아 불우이웃 등에게 지원하는 의미있는 사랑 나눔을 이끌고 있는 제주마썸 한상용 회장.

2009년 6월 문을 연 푸드마켓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같은해 11월 도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주마썸’을 함께 사용하며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원업체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푸드마켓 등에 사랑을 전달했다.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을 비롯해 갈치·고등어 등 수산물, 표고버섯 등 농산물, 차와 초콜릿 등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푸드마켓 운영에 숨통을 트였다.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장애인시설과 푸드마켓에 후원했다.

한 회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 회장은 “경영이 어려운 회원업체들도 흔쾌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회원업체들도 늘어나고,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마썸’은 ‘제주입니다’의 제주도 방언으로, 2002년 5개 업체를 중심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한 이후 2009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2월 식품 기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0kg ▲서문식품=두부 420모, 콩나물 180봉 ▲김치원=김치 75kg ▲존샘봉사회=김치 80kg ▲분다클럽 한라회=쌀 100kg ▲(주)동부건설=가래떡 200kg ▲일도2동새마을부녀회=가래떡 200kg ▲한국무역공사 제주사무소=라면 등 100만원 상당 물품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쌀 1100kg ▲제주시농협=쌀 1500kg ▲서귀포농협=쌀 500kg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50만원 ▲제주은행 제주시청점=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상품권 1029만원

신년사

“제주사회복지중심 역할에 충실”

이 동 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부푼 기대감 속에 새 천년의 시작을 맞이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새 천년의 또다른 10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물론 계층간·세대간·이해집단간 갈등과 분열의 폭이 커지는 등 우리네 삶의 모습이 많이 각박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이타의 정신 또한 깊고 넓게 자리잡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고 당당히 권리를 추구하는 소비자로서 그 위치가 새로워졌으며, 집단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형태도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등 복지 서비스의 품질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일상화·보편화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선심성으로 자리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천년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신묘년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덕적 덕목인 나눔과 배

려, 이타 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통해 소통의 단결과 불신으로 야기된 다양한 갈등들을 대승적이고 과감하게 해소함으로써 세계를 향한 제주도민의 응집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

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며 이기적 갈등을 뛰어넘어 세계를 향한 제주사회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상생과 도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고 다름이 틀린 것이 되지 않으며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할 때 우리 제주도의 잠재된 역량은 세계를 무대로 맘껏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제주사회가 보다 역동적이고 합일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늘 제주사회복지의 중심에서 맡은바 사명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 제주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이 깃들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謹賀新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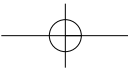
신묘년(辛卯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일시 2011. 1. 12(수) 11:30 ~ 13:00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삼다수홀)
내용 새해인사 / 참가자교례 / 오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www.jejubokji.net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1112-1)
Tel. 064-702-3783 ~ 4 Fax. 064-702-3383



“방학에 끼니 거르지 마세요”

道, 겨울방학 아동급식 특별대책 마련

58억400만원 예산 편성...9701명 지원

겨울방학 아동급식 특별대책이 마련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방학기간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아동급식예산으로 58억400만원을 편성, 이번 겨울방학부터 9701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가운데 급식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 9654명보다 인원이 다소 늘었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아동급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액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아동급식예산은 지난해 56억4500만원보다 2.8% 증액됐다.

특히 폭설 등 기습한파로 급식제공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식 및 식품권 등으로 급식제공 방법을 변경하고, 상

습 강설지역은 리·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또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위생관리를 위해 아동급식시설·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수칙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학기간 아동급식 특별대책반을 운영, 급식대상 아동이 누락되거나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리·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하면 즉시 지원토록 하는 등 민간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미술관서 희망의 제주말 전시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동신)는 1월 8일부터 한달간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유종욱 작가가 함께 하는 ‘희망의 제주말(馬)

展’을 갖는다. ‘꿈꾸는 바다’를 주제로 제주 조랑말에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의 세계와 꿈, 희망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창암재활원 음악치료발표회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감동이 살아있는 Music Show’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11월 28일 음악치료발표회를 실시했다.

토요일마다 1시간씩 음악치료를 받은 뇌병변 장애아동과 지적 장애아동들은 음악발표회를 통해 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담았던 실력을 맘껏 뽐냈다.

이번 발표회는 친구들과 하



모니를 이루며 다양한 곡을 직접 연주한 아동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부모들에게는 희망과 만족감을 제공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증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95개 업체 181명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3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2009년에 비해 업체는 9곳, 인원은 13명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은 2억8200만원에서

27% 늘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7년 57명에 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시작으로 2008년 94명에 1억9400만원, 2009년 154명에 2억8200만원이 지원되는 등 해마다 지원금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한 업체(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일배움터 개원5주년 기념식

일배움터는 12월 3일 개원 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현경훈 미카엘 신부의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현정은·김우전·강승호씨가 우수근로인상을 수상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성산일출봉 나들이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배움터는 개원 후 보호작업장으로 시설유형이 개편됐고,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또 중증장애인생산물 인증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특산물전시판매장에도 입점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사랑의집, 송년의 밤 개최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사랑의집(원장 김호성)은 12월 9일 한해를 마감하면서 생활인 가족과 프로그램활동을 도와주신 분,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초대해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지원 사업인 ‘중증장애인 치료 접근을 통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평가회와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제주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활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비로 195건에 2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3가구에도 의료비와 생계비 등 49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저소득주민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전문요원 6명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

극적으로 발굴해 집중관리 지원이 필요한 490여가정에 192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이 외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등 중·고등학생 1563명에게 교복구입비와 수학여행경비 등으로 3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제주시는 ‘복지희망-폴’ (국번없이 129번)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관련 전화상담은 물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빠른 연계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4월 30일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주시는 4월 30일까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악성신생물(암), 백혈병,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107개 질환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다.

기존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을 방문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의료급여 1종 적용을 받아 의료급여수가 진료비 100% 감면과 함께 의

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금(500~2000원)을 감면받는다.

또 서울 등 도외 진료시 왕복 교통비(항공 및 선박료)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 진료비 감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 부담 경감 등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6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출산대책 ‘최우수’에

안덕면·용담1동·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총체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읍·면에 서귀포시 안덕면, 최우수 동에는 제주시 용담1동과 아라동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 읍면에는 서귀포시 남

원읍과 성산읍이, 우수 동에는 제주시 이도2동, 산도1동, 건입동, 화북동, 노형동, 서귀포시 중앙동이 각각 뽑혔다.

이번 평가는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가입율(40%),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협력 가맹점 참여율(40%), 사회교육, 홍보 등 도민인식개선사업 추진 실적(20%) 등 3개 평가항목에 대해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출산율 2.0 제주플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650,000	650,000
난치병환아후원	30,000	0
자원봉사후원	470,000	470,000
복지사업후원	1,294,210	275,260
푸드마켓후원	2,140,000	648,67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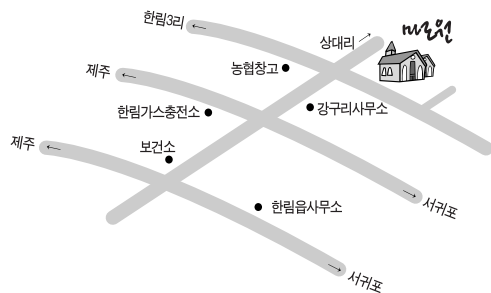
시설탐방

(38)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함께, 더따뜻한 세상을 꿈꾼다

세밑의 포근한 겨울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역새를 따라 찾아간 곳은 사회복지법인 마로원(대표 양은심),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현대적 감각의 세련되고 아담한 건물의 마로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9월 개원한 마로원은 이듬해 부설기관으로 길직업재활센터를 개원했으며, 2008년 4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삶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이곳에는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해 장애인과 훈련교육생 등 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위생물수건 세탁 및 납품사업(無알콜, 無독성, 無자극 상품으로 주기적 위생검사와 친환경 면 원단을 사용한 밑을 수 있는 제품) ▲숙박업소 침구류 세탁사업 ▲종이컵 및 정수기용 봉투컵 생산·판매사업(無형광, 천연고급 펄프 사용으로 환경호르몬이 걱정 없는 상품) 등이 있다. 또 이달 오픈예정인 물티슈 사업은 생산단계에 돌입했으며, 보리빵·찐빵 생산 판매사업(한림읍)과 반찬가게(아라동)를 이달 중순에 열기 위해 한창 준비중이다.

마로원은 이를 위해 △직업준비 및 직업수행 적응훈련 △직무능력 향상 및 직업적응 유지훈련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교육활동 프로그램



양은심 대표 “특수학교 성격 띤 대안학교운영”

△미술·서예·교양·레크리에이션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로’는 아주 오래된 고목 나무의 굵고 길게 쭉 뻗는 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순우리말이다. 마로원은 어렵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늑하고 편안한 쉼터를 지향하는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아늑한 보호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와 대가 제공을 통해 직업능력 획득 및 독립적인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미연 사회복지사는 “꾸준히 저축을 해 목돈을 모은 근로자가 있다”며 “다른 장애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뿐

만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양은심 대표는 “이 곳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쉼터와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고,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은 물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 시절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부를 중도하차한 사람들이나 공부하고픈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학교 성격을 띤 대안학교를 지어 마지막 꿈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064-796-5777.

〈조순옥 명예기자〉

제주도, 의료급여사례 성과평가 전국 2위

개인성과 상위 30%평가는 1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성과 시·도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의료급여관리사 개인성과 상위 30% 평가 부문에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사례 성과평가는 시·도 실적, 시·군·구 실적, 의료급여관리사 개인 실적 3개 분야에 수급권자 전체 진료비, 급여일수, 의료급여관리사 개별 사례관리 실적 등 13개 성과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제주시 4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SS등급과 S등급을 받은 등 높은 점수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인별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적절한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에는 10명의 의료급여관리사(제주시 7명, 서귀포시 3명)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교육, 서신발송, 전화 상담 등 1300여건과 장기입원환자와 파소·과다 병의원 이용자 등에 각종 자료 제공, 방문·전화상담,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400여건의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수행했다.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배움·도움·나눔·알림 4개 테마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제주복지넷(jejubokji.net)'이 새롭게 개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협의회가 추진하는 교육훈련사업과 자원봉사진흥사업, 식품나눔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개별적으로 '사회복지 아카데미' 수강이력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 교육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현장과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개인·단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정보' 코너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과 모범적인 공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도 운영한다.

생활계 시판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현장 종사자간 상호교류는 물론 각종 지식과 자원의 공유 등을 활성화시키고, 제주복지넷을 민간 사회복지현장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작년보다 85명 증가한 288명 모집

제주시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 2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3명에 비해 85명이 증가한 것이다.

사업기간도 2월부터 10월까지로 지난해보다 2개월 늘렸으며, 장애인들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월 근무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등 일반형 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시설 도우미 등 복지연계형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며, 주 3~4일(1일 3~4시간) 월 44시간을 근무하면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월 2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희망하는 대부분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원 서예작품 전시회

장애인보호작업장 한라원 작업활동시설은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서예를 통한 '행복한 자기표현 교실'의 하반기 작품전시회를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각 5일씩 열었다.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들은 비록 뛰어난 솜씨는 아닐 지라도 지난 일년간 열심히 연습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값진 자신들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인 것에 대해 매우 즐거워했으며, 가족들 역시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인 자녀들을 격려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전시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도민들은 이런 전시회가 자주 열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마음으로 세상을 봐요”

시각복지관, 심리사회 적응력 향상사업 종료 대상자 욕구·특수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축



“안질환이 심해 병원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차츰 눈이 썩어 들어가 결국 안적출을 했다.”

“갑작스런 아들의 사망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정확한 진료는 받아보지도 않고 그저 여러 차례 자살 시도만 했다. 남태령지에서 투신도 하었다.”

듣기만 해도 안타깝한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실화이다.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장

애를 만난다. 특히 감각기관 중 큰 비중을 갖는 시각의 상실은 일상생활의 기능적 부분, 심리적 부분에서 대단히 큰 상실과 제한을 초래한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재활팀은 장애 발생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고립되기 쉬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들이 자조적인 능력으로 사회에 다시 참여해 자존감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중도시각장애인 대상 심리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 이번 사업은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자극해 몸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몸의 신체활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춤동작치료, 향기치료, 요리치료, 음악치료로 구성됐다.

이 사업을 담당한 양정선 사회복지사는 “제주도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선천적 장애와 중도시각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내용도 장애 정도나 장애 발생 시기, 개인 편차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명예기자〉



제주경남자원봉사센터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석수근)는 12월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0 자원봉사자의 날

제주양로원 · 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 제주요양원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기 위해 ‘2010 자원봉사자의 날,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우수자원봉사자(단체)와 후원자에 대한 표창패 전달 및 흥겨운 어울림마당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표창자 명단

▲제주시장 표창 △선돌민속예술원 한성순 단장 △좋은이웃봉사팀 △백마가든 ▲법인대표이사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여성자원봉사센터 장미팀 △정인순 △고담호 △김효정 △오은미 ▲제주양로원장 표창 △박용배 ▲제주요양원장 표창 △양성건씨 가족봉사팀

소/식/마/당

온누리봉사회 창립 18주년



온누리봉사회(회장 정찬욱)는 12월 19일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회원간 우의와 친선을 다졌다.

정혜재활원 개원5주년 기념식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11월 26일 사회복지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흥기 원장은 지금까지 정혜재활원을 아끼고 사랑해 준 지역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작품 전시회와 댄스, 난타 동아리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3기 빛누리실버연극단 특별공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12월 9일 개관 6주년을 기념해 3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의 특별공연을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빛누리실버연극단의 4년간 발자취를 회고하는 동시에 3기 연극단의 마지막 공연 자리였다.

국민은행 일도지점 김장담그기 봉사



국민은행 일도지점(지점장 김한백)은 연말을 맞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2월 11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를 찾아 김장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지원하고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한백 지점장은 “앞으로도 계속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가의집에 후원물품 전달



좋은인연봉사회(회장 고영봉)는 12월 22일 아가의집을 방문해 2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또 장애인들의 목욕을 돕고 목욕 및 화장실·복도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좋은인연봉사회는 매월 아가의집과 성이시물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는 12월 10일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와 행사를 갖고 가정환경은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초·중학생 5명에게 각각 장학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봉사회 수익사업으로 거래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영락복지관 무인카페 조성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인)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무인카페(사랑나눔카페)를 조성했다.

무인카페에는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친교의 장소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원두커피와 과자를 마련했다.

“김만덕, 시대 초월한 나눔문화 상징”

양원찬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 주최로 하나관광호텔에서 열린 ‘2010 사회복지 초청강연회’에서 “의인 김만덕은 시대를 넘어선 나눔문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김만덕의 삶과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만덕은 여성으로 한 정된 역할과 신분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의지의 소유자였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누는 나눔과 상생의 실천가이자 인본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덕의 나눔문화는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2009년 ‘김만덕 나눔살만살’을 통해 모은 모금액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며, 일부는 해외 빈곤아동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건립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연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강도아 제주보육원장과

양원찬 대표, 2010 사회복지 초청강연 사회복지 특별공로상에 강도아·김성산 원장



△양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가 ‘2010 사회복지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성산 남제주요양원장이 사회복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선자 제남이동복지센터 사무국장과 조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국장은 올해의 사회복지사상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이 주어졌으며, 시상금은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도감귤연합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 외에 김찬수 제주시각장 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이부형 서귀포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안창준 대진가스 대표, 김명환 위미에덴요양원장,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장, 이창만 성이시돌요양원 사무국장에게는 평생회원패가, 이명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주무관에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패가 각각 주어졌다.

‘희망2011나눔캠페인’ 출범식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가 ‘희망2011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1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랑의 열매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이어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모금목표액은 16억원이다.

언론사에 모금접수창구가 마련돼 성금을 접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약국,



음·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서도 동참이 가능하다. 휴대폰, 전화 등으로 ‘사랑의전화’ ARS (060-700-1212, 한 통화 2000원)에 참여할 수도 있다.

김순두 회장은 “지금까지 도민들의 나눔은 제주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사각지대 곳곳에 놀라운 변화를 줬다”며 “올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영덕씨, 애덕의집에 버스등 차량 2대 지원

제주애덕의집(원장 이대원 신부)은 12월 18일 평소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재일교포 고영덕씨로부터 노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차량과 장애인들을 위한 중형버스를 전달받았다.

이대원 원장은 고영덕씨의 뜻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장애인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들이 지원, 병원진료 등 차량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운영보고서 발행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7 테마기획 농어촌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보고서를 발행했다.

다문화가족의 빠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어울림배움터는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운영보고서에는 다문화어울림배움터가 2008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성과와 평가, 사진자료 등이 담겼으며, 부록으로 올해 발행된 다문화소식지 모다들영이 수록됐다.

다문화어울림배움터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문화적응력을 높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글로벌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는 글로벌인재양성 업무협약식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MBC, 제민일보사와 진행했다. 또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제주의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월드비전 제주지부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서의 인성교육과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기아체험 열린캠프,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또 제주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기초로 한 세계시민교육 및 기아체험



열린캠프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마을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직접 해외자원봉사단으로 파견돼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전쟁고아와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월드비전은 세계 100여개 국가 1억명을 돕는 세계최대기독교NGO로서의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새로운 문화창조자’ 즐기는 모든 것이 문화다

제6회 장애인문화예술제

제6회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12월 8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 제주장애인야간학교(교장 오옥만) 공동주관으로 열린 문화예술제는 풍물패 ‘큰울림’의 길트기공연을 시작으로 노래패 ‘머리카락’ & ‘노래밴드허당보란’의 노래공연, 연극단 ‘나눔’ & 영상미디어 ‘오뎅’의 뮤비극 ‘사랑이 지나가면 ♪~’ 공연이 라이브시어터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연진과 가족, 자원봉사자, 대학생, 활동보조인, 야학교사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장애인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해정원장애인재활시설 10주년

해정원장애인작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12월 17일 ‘행복의 걸음 10년’ 회상을 향한 10년’을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설의 사업소개와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으며, 앞으로의 시설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또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준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식사와 다과 등을 대접했다.



아가의집, 준비가정 오픈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12월 14일 Pre-Group home(준비가정)을 오픈했다.

준비가정은 지역사회로 이주를 희망하는 생활인 4명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및 다양한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입주 전 준비 프로그램이다.

칼럼

벽(壁)



김길웅
수필가·시인

“어머니의 한숨소리와 탄식 속에 자랐어요. 한숨과 탄식은 눈물로 이어졌고..., 세상이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커녕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 겁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건 엄두도 못 냈지요. 다리가 뒤틀려 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데다 두 손마저 이렇게 됐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땠겠어요? 아마 눈을 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휠체어나 전동차 같은 탈것도 없었거든요. 하긴 그 이전에 부모님이 나를 밖에 내보이려 하지 않았습시다. 특히 선친은 당시 면장을 지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요. 체면을 다친다고 여겼을 겁니다. 어떡합니까? 외로웠지만 집에서 나 혼자 놀고 만지면서 혼자 세상을 살았지요. 나이가 들면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더라고요. 한자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에

서였습니다. 천자문을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그랬어요.”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운영하는 ‘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창립회원인 H씨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씩씩씩 풀어놓는다. 그는 걸음이 몹시 불편한 뇌병변지체장애인. 환갑을 벌써 넘긴 나이에 아내와 1남 1녀, 처자를 거느리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다른 수입원이 없다. 그 지원금이라는 게 최저생활비에도 아주 못 미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젊은 시절,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바둥댔다. 바둑을 잘 두는 그는 몇 년 동안 시내에 기원을 차리기도 했었지만 빚만 늘어 그만 두었다. 무얼 할 것인가, 사족이 자유롭지 못한 그에게 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절대 빈곤 속에 허기진 삶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복지관에 나가 서예를 공부하고 문학 강의를 들으며 글쓰기에도 열중한다.

아내의 생일날 자장면 두 그릇을 시켜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하던 이야기를 쓴 그의 수필을 읽으며 울컥한 적이 있다. 그대로 감동이 있다. 가난해도 긍정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그가 아니면 연출해 낼 수 없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세밑, 누님에게 한라봉 한 상자를 사 보냈다고 했다. 어렸을 적부터 한 집에 살면서도 누님은 자기를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눈 한 번 맞추려 들지 않는 매정한 누님이 다. 하지만 누님도 이제 고회가 목전이란 생각에 동생으로서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다가가려 한 것이다. 손위 누님에게 어머니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혹여 전화로라도 이름 한 번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으리라. 한데 아니었다. 전화 한 통이 없단다.

가족도 외면하는 장애인식 답답

그 누님, 교편을 잡았던 분이 다. 선생이나 했던 분이 운운하려는 게 아니다. 사람 얼굴을 하고서 제 동생을 평생 안 본다고 작정할 수 있는 일일까?

그에게서 ‘한라봉’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울컥했다. 가슴 찢어질 일이었다. 그에게 무어라 한마디 해야겠는데, 나도 누님과 같은 교직에 몸담았던 처지라 더욱 할 말이 없다.

누님이 그 동생을 외면하는데 하물며 남이아더 말할 게 무엇이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앞을 막아선다. 답답하다.

시론

새해에도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2011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모두들 올 한해를 새롭게 다짐하며 새로운 소망을 만들 것이다. 건강, 승진, 자기개발, 가족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하는 새해 계획이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진다. 그래서 매해 똑같은 소원이라도 새해소원은 항상 특별하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새해는 특별하다. 아이들의 새해소망에는 인생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이 담겨져 있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유치하고 보잘 것 없는 소원이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생각도 못하는 소원이다. 한 소년의 “키 10cm만 크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 나이, 성장환경에 맞는 새해소원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작은 소망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 아이들의 아픔은 일정부분 담아내고 있으나 그들의 행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시작은 부모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보호가 결정되어지는 부조화된 보호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아동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의 입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모의 소득에 대해 우리는 먼저 논하고 있다. 물론 평등이라는 이념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지만 그 방법에 대한 어른들의 싸움은 참 보기가 민망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1년 달라지는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약 아동 지원확대’를 위해 드림스타트를 30개 지역으로 늘리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자는 2세 이하 수급자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적용대상에 아동암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이다.

역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부족해 보인다. 우리 아이들의 아픔에 대한 지원도 고개를 가웃거리게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정책의 규모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아동복지 관련 업무들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보건복지부 업무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생각했을 때 아동복지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도 국가적인 위기이지만, 그나마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조차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한 계획 예산없이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 갑자기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이 튀어나온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분명 희망은 있다. 부모들의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성장과정, 정서상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리고 주위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통한 멘토 역할을 해주거나 도서지원 및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정책도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우리의 인식을 반영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 한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강철남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

독자詩

아름다운
연꽃 향을
담은 사람



오우겸
온누리봉사회

아침이슬 머금고 갓 피어난 연꽃 향처럼
조용히 마음을 여는 연꽃 향을 담은 아름다운 사람

타인보다 팔이 길고 손이 큰 사람!
타인보다 다리가 길고 발이 큰 사람!
타인보다 가슴이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람!
타인보다 연꽃 향처럼 아름다운 행복의 미소를 가진 사람!
타인보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가진 사람!

팔이 길고 손이 크기에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인양
두 팔로 내 가슴에 앉습시다!
뜨거운 가슴으로 아픔을 함께하여 치유하고자

다리가 길고 발이 크기에 어두운 곳의 등불이 되고자
타인이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널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불을 밝히고자

연꽃 향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미소를
나 혼자가 아닌
모두의 마음에 아침이슬과 같이 축축이 스며들게
뜨거운 가슴으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고자

귀를 열고 눈이 크기에 작은 나눔이지만 함께하고자
행복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과 큰 기쁨으로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자
온누리 회장님!
온누리 나눔터 팀장님!
그리고
봉사자 회원님들!
당신들은 타인보다 팔과 다리가 길고 손과 발이 크며 가슴이 뜨거우며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을 머금고 귀가 크며 마음의 눈이 크신
당신들은 진정한 성모이시며 예수이시며 보살이십니다!

○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시책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을 저소득층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건·위생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저소득층복지

최저생계비 5.6% 인상...저소득층 생활안정 도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됐다. 현금급여 최고한



도액도 117만8496원(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3만7470원 인상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면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복지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부부 중 낮은 소득 1명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수당을 받는 대상도 만 0~1세에서 만 0~2세로 늘어났다.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74만원(부부 118만4000원)으로, 지난해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인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빈곤층에 속한 어르신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위생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1곳 추가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낙후 및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미흡하거나 시급성 등을 평가해 보건진료소 10개소를 우선 신축 확대 운영한다.



한의학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 1곳을 추가 지정,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가 지원된다. 1회당 180만원씩, 총 4차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1000만원(1회당 300만원, 4회째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던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중 BCG,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등 3종에 대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일본뇌염, 티디 등은 종전과 같이 30%가 지원된다.

취학 또는 외국 유학 시 제출해야 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 '민원 24'(www.minwon.go.kr)에 로그인 후 예방접종증명 신청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 증명서 교부대상자의 보호자로 등록된 보호자에 한해 발급된다.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등 추가 지원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5월 11일부터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

득·재산 기준)이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오른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돼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겐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전환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일괄해 운영한다. 4대 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도 다양하

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격관

리, 부과, 급여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늘 행복하시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기원합니다.

이제 제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바람과 물은 석유의 가치보다도 더 큼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과 스마트워터 플랜트 실증단지 사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원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제주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수출 1조원 달성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여 제주경제가 세계화의 경제에서 이기는 겁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과 창의적인 소통을 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제주의 촘촘한 복지공동체로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화합과 포용'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으로! 전화투표 001-1588-7715 “빠” 소리후 7715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